

국회 파행 '심리적 데드라인' 넘었다

여야, 국회 정상화 협상 또 무산... 추경 46일째 방치 한국당 패스트트랙 철회 주장 여전... 3야, 결단 촉구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심리적 데드라인'으로 인식돼 주말과 휴일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며 난항을 거듭했다.

여야는 9일 당초 기대를 모았던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된 가운데 조건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정치공방만 주고받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북유럽 순방길에 오르면서 경색 정국의 돌파구 마련에 도움을 줄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도 물거품이 된 한국이다.

민주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 처리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대표의 패스트트랙 철회 주장에 대해 "오늘로 46일째 추경 논의를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장외투쟁에만 협안이었던 이유가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논의를 지연시켜 득권을 사수하기 위한임을 의심고백한 것과 다름없다"며 "막발과 색깔론으로 국민분열을 조장하며, 정치적 이익만 쟁기려는 황교안 대표는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협상 타결을 위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으나 회동은 일단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10일까지 협상 상황을 지켜보고 국회 단독 소집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단독 소집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고

한국당의 공세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협상타결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를 단독 소집할 경우 한국당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공세는 공세대로 펼치고, 추경 처리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주당 내부의 시각이다. 또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단독 국회 소집에 반대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파행 장기화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맹공을 퍼부었다. 협상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다 국회 단독 소집까지 거론해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공격 지점이었다.

한국당 김경재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처리'하지는 야당 요구를 못 받겠다는 것은 '일방처리', '날치기처리'하겠다는 엄포나 다를 없다"며 "앞에서는 '정상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국회 단독 소집'을 운운하는 것은 협상이란 명분으로 야당을 길들여 보겠다는 여당의 오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국회 단독 소집이 한국당 입장에선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기류도 흘렀다. 추경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몫이라 추경이 바로 처리될 수는 없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실책을 따져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거대 양당의 양보와 결단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단독 국회로 몰고 가는 여당이 무책임하다"며 "한국당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양보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국회 거부가 심각한 정도"라며 "아무리 원외 인사라지만 국회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일말의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한반도 평화 비전 국제적 협력 기대” 야권, 문대통령 순방 논평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국 순방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은 순방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비전이 확산되고 국제적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했으나, 한국당은 어려워진 외교·안보와 경제 현실은 뒤로한 '현실 도피'라고 평가 절하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혁신 성장과 포용 국가 실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국가 비전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대한민국 역사 뒷걸작업으로 갈등의 파문만 일으키더니 현실 도피에 나섰다"며 "집구석 부엌 아궁이 있는 대로 달궂고 있는 천편(川鱗) 짬뽕 정선 팔린 사람마냥 나 홀로 냇가에 몸 담그려 떠난 객"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상호 관계 강화와 북유럽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고,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한반도의 평화를 진전시키고, 북유럽의 합의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교착상태인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물꼬를 트는 구상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여사가 9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환승인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6박 8일 일정으로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3국을 국빈방문 한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북유럽 3개국 순방길 핀란드 등 6박8일... 노르웨이 '오슬로 선언'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6박 8일간의 북유럽 3국 국빈방문을 위해 9일 오후 출국했다. 이번 순방은 혁신 성장과 포용국가 비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북유럽 3국과의 협력 확대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9~11일 핀란드 헬싱키를 방문한다. 10일 오전(현지시간)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양해각서 서명, 공동기자회견을 한다. 문 대통령은 11일 안티 린네 총리와 회담한 뒤 두 번째 순방국인 노르웨이의 오슬로로 향한다.

문 대통령은 11일부터 13일까지 노르웨이

에 머문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공식 환영식, 2차 세계대전 참전비 회화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며, 오슬로 대학에서 열리는 오슬로포럼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13일 오전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협정 및 양해각서 체결,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다. 13일 노르웨이를 떠나 스웨덴으로 이동하는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공식 환영식으로 시작으로 15일 오전에는 스테판 뢰벤 총리와 회담한 뒤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임동욱 기자 tuim@

바른미래 내홍 갈림길

오늘 의원 워크숍...孫 퇴진 등 현안 120분 난상토론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10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계기로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당내 모든 갈등 현안을 올려놓고 120분 동안 진행된 난상토론 결과를 따라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안철수·유승민계 연합 간 계파 갈등의 봉합 여부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9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워크숍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회의장에서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초청 강연으로 시작된다. 약 30분의 강연 뒤 참석자들은 70분간 김 전 장관과 질의응답을 하고 토론을 한다. 오후 4시부터는 2시간 동안 원내·당내 현안에 대한 난상토론이 예정됐다. 손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의 마무리 발언 외에는 정해진 주제와 형식이 없다.

현재 당권파와 안-유 연합이 가장 갈등을 빚는 지점은 당을 수습할 혁신위원장을 누구로 세울지다. 당권파는 주대환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우기로 하고 안-유 연합을 설득하는 중이다. 실제로 손 대표는 7일에도 바른정당계를 직접 접촉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안-유 연합은 '정병국 혁신위원장'을 손 대표 측에 압박한다. 주 공동의장은 손 대표와 가까운 인물이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이 구상하는 혁신위원회는 손 대표의 거취까지 '혁신 대상'으로 삼는다. 당권파와 충돌이 빚어지는 대목이다.

당권파 내부에서는 주말 동안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혁신위원회 설치를 표결하자는 강경 주장도 나온다. 가결되면 오후 워크숍에서 '인물 경쟁'을 벌이고, 부결될 경우 혁신위를 아예 접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혁신위원회 하 의원의 정계 사안에 대해 한 걸음씩 물러서는 타협안도 거론한다. 안-유 연합은 하 의원에 대한 징계제도 자체가 부당한 만큼 이를 제대로 된 타협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오히려 손 대표의 측근인 송태호 윤리위원장을 교체하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DJ 장남 김홍일 전 의원 5·18 묘역 안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고(故) 김홍일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됐다.

이날 5·18민주묘지 제2묘역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부인 윤혜라 여사 등 유가족과 이용섭 광주시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박지원 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영결식장에는 대통령의 근조기가 내렸으며, 제2묘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고인의 영결(유골)을 옮겨오는 것으로 의식이 시작됐다. 영결식은 국민의례, 묵념, 조사, 헌화·분향 순서로 진행됐다.

장부 대표로 조사한 국립 5·18 민주묘지 신경순 소장은 "이 땅의 민주화를 위

해 겪으셨던 고인의 희생과 정신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며 "나는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는다"는 생전의 말씀처럼 하늘에서도 천천히 쉬지 않고 민주주의 등불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고인을 기렸다. 지난 4월 20일 별세한 김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당한 5·18 유공자로 국립 5·18민주묘지 안장 대상이었다. 그러나 2006년 나라중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은 전력 때문에 국립 5·18 민주묘지에 곧바로 안장되지 못하고 5·18 구묘역으로 불리는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임시 안장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야3당 오늘 '보수·진보 문제'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보수와 진보 정치의 문제점과 향후 진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10일 열린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3

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평소 본인들이 생각하는 보수와 진보의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건강한 보수와 진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가치 좋음.
- 토지** ▶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유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옆.
- 병원** ▶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장** ▶ 광주 북구 연제동 건물 : 2484.32㎡(751.5평) 지상2층 건물매매가,
감정가 : 40억5천만원 최저가 : (15%) 5억9천5백만원 (토지 임대가능)
- 공장** ▶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토지 : 3769㎡(1137.1평) 건물 : 2040.5㎡(617.3평)
지상1층 **감정가 : 14억8천8백만원 최저가 : (56%) 8억3천3백5십만원**
- 공장** ▶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토지 : 3305.7㎡(1000평) 건물 : 492㎡(148.8평)
지상2층 **감정가 : 7억8백4십만원 최저가 : (70%) 4억9천5백9십만원**
- 의료시설** ▶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토지 : 11139㎡(3369.5평) 건물 : 5530.56㎡(1612.5평)
감정가 : 40억3천만원 최저가 : (56%) 22억6천만원
- 의료시설** ▶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70%) 10억1천7백4십만원**
- 근린주택** ▶ 목포시 옥암동 토지 : 555.7㎡(168.1평) 건물 : 1210.35㎡(366.1평)
지상4층 **감정가 : 15억9천8백만원 최저가 : (70%) 11억1천8백5십만원**
- 임야** ▶ 신안군 압해읍 북룡리 토지 : 12900㎡(3902.3평)
감정가 : 1억9천3백5십만원 최저가 : (45%) 8천6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